소년단

1955.5.

5월의 명절

산과 들엔 각가지 꽃들이 피고
강물은 푸르고 하늘은 맑고나。
5월 초하루, 해마다 즐거운 명절
은 온다。
온세계 근로자들의 명절은 온다。

지난해보다도 더 큰 행복을 싣고,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자랑을
싣고,
즐거운 봄 명절, 5.1절은 온다。
해마다 해마다 더 억센 힘을 떨
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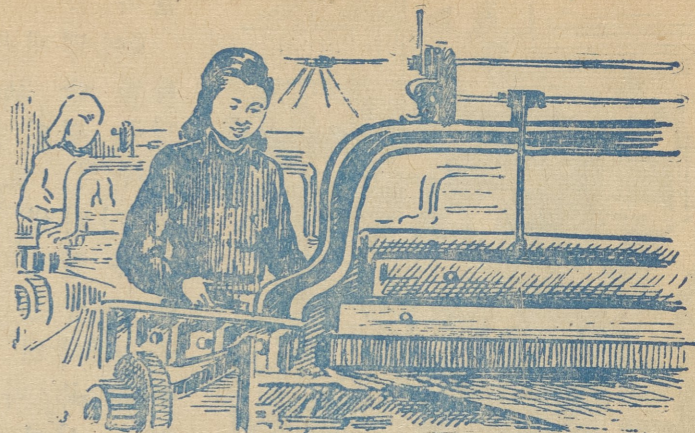
꽃바람에 붉은 넥타이 펄펄 날
리며
아름다운 꽃다발을 한아름 안고,

춤과 노래 자랑하며 거리로 나
가자。
오늘은 5.1절 승리의 명절날,

공장에서 광산에서 일하시는
로동자 아저씨께 꽃다발 올리자。
훌륭한 우리 학교 우리 공원 지
어 주신
형님과 누나들께 경례를 드리자。

로동자 아저씨들 밤과 낮 쉬지
않고
공장에서 광산에서 땀 흘리면,
조국은 날마다 기쁨에 차고
행복은 날마다 꽃피여 간다。

5월을 노래하자, 축하를 드리자。
로동자 아저씨들 승리의 명절날
을,
온 세계 근로자들 커가는 힘 떨
치며
해마다 해마다 봄명절은 온다。

리 호 일

로력영웅 염정자 언니

박 정 렬

로력 영웅 염 정자 언니의 어린 시절은 눈물 겨웠다。 영웅 언니는 아홉살때,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학교 문을 들어선 것이 아니라 방직 공장 문을 들어섰다。

어린 정자의 아버지는 날마다 탄광에 나가 허리가 휘도록 일하였다。그렇게 일해도 어린 딸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 죽도 날마다 넉넉히 차례지기 어려운 살림이였다。 쓰린 배를 걷어 안고 죽그릇에 비친 자기의 얼굴 그림자를 물끄럼히 들여다 보던 어린 정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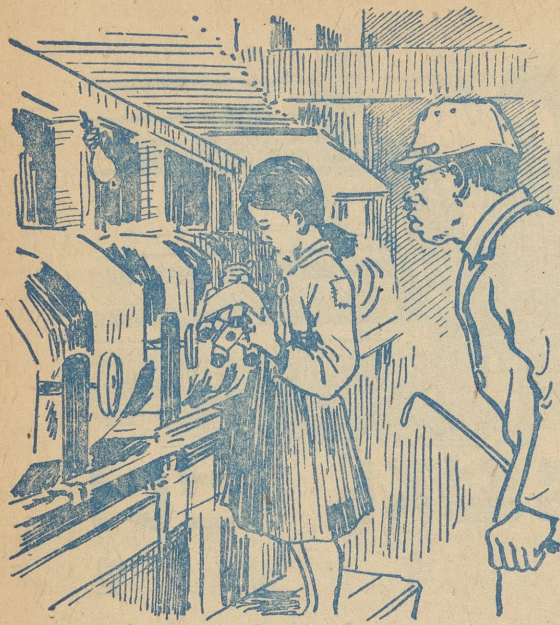
《어머니, 나도 일할테야요。 공장에라도 보내 줘요》하고 어머니에게 졸라댔다。

《어린 네가 어떻게 일한단 말이냐?》하고 어머니는 어린 딸 정자의 조그만 손을 어루만지며 한탄하였다。

어린 정자는 구차한 살림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 끝내 공장으로 나가 일하기 시작했다。

어린 정자는 작업대에 손이 잘 미치지 않아 궤짝을 고이고 일했다。멀건 죽으로 끼니를 에우고 하루 열두시간씩 실 감는 일이란 여간 고된 것이 아니였다。 낮이 기울면 배가 고픈 나머지 쓰려났고 고된 일에 지치여 그 자리에 쓰러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였다。 궤짝에서 떨어져 실을 끊는 날이면 일본놈 감독이 뛰쳐 와서 여윈 뺨을 멍이 지도록 후려 갈겼다。매질로 끝나질 않고 벌금을 받는다, 내쫓는다고 야단이였다。

또 어느날, 어린 정자는 가까스로 몸을 버티고 서서 실을 감다가 뜻밖에 매를 맞았다。일본놈 감독은 정자에게 빈 실토리를 모아 오라고 고래고래 웨쳤으나 어린 정자는 일본 말을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일본말을 모른다고 매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기쁜 명절날은 오고야

말았다. 8.15 해방과 함께 정자 언니에게도 보람찬 앞길이 환히 열렸다.

소년공인 정자 언니는 인민의 공장에서 하루 여섯시간씩 일하면 되였다. 정자 언니는 자기 맡은 일을 넘쳐 끝내고는 공장 성인 학교로 달려가군 했다. 석달이 지나자 신문 잡지를 막힘없이 읽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가르침을 직접 읽고 자기 손으로 학습장에 옮겨 쓸 수 있게 되였을 때의 기쁨은 더욱 컸었다.

정자 언니의 마음은 어서 커서 어른 들처럼 여덟시간씩 일해서 일을 푹푹 자리 내고 싶었다. 많이 일하면 일한만큼 그것이 조국을 튼튼케 한다는 것을 배웠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이 꽃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였다.

《어떻게 하면 천을 더 많이 짜낼 수 있을가?……》. 정자 언니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루의 로동과 학습을 끝내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천정에 자기가 맡은 직포기들을 그려보며 북 바꾸는 시간과 실 잇는 시간을 생각해 보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북 바꾸는 시간 20초와 실 잇는 시간 40초는 너무 더디고 답답해 났다.

정자 언니는 좋은 경험과 기술을 한시 바삐 익히려고 더욱 애를 썼다. 짬만 있으면 북 바꾸며 실 잇는 시늉을 해보았다. 기술 전습회 외에, 도서실에서도 밤 깊도록 기술 서적을 연구하여 꾸준히 기술을 높여 나갔다. 좋은 경험과 기술을 배우면 배우는대로 작업에 옮겨 보았고 잘 안되면 다시 연구하군 했다.

정자 언니의 굽힘 없는 로력은 열매를 맺었다. 정자 언니는 한대로 부터 두대, 두대로 부터 넉대로 직포기를 더 맡았다. 북 바꾸는 시간도 20초로부터 5초로, 실 잇는 시간도 40초로부터 13초로 쭈리는 놀라운 성과를 내여 그 이름을 떨쳤다. 이것은 1952년의 일이였다. 정자 언니의 첫 성공을 더욱 기쁘게 해준 것은 초급 당 위원장 아저씨가 전해 준 소식이였다.

《기쁜 소식이요! 상급 당에서 비준됐소》하고 아저씨는 정

자 언니가 로동당원이 된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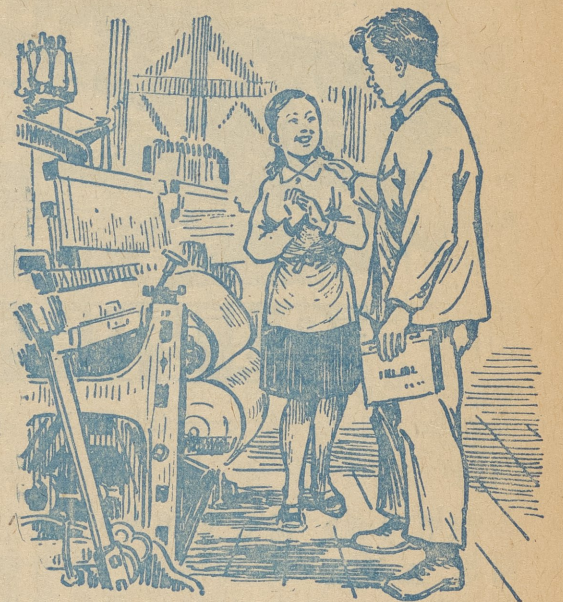
염 정자 언니는 자기를 민청원으로 키워준 소년단 생활을 생각했고, 로동당원으로, 생산 혁신자로 교양 훈련해 준 민청 생활을 생각하였다.

《그때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 힘이 내 몸에서 막 샘솟는 것을 느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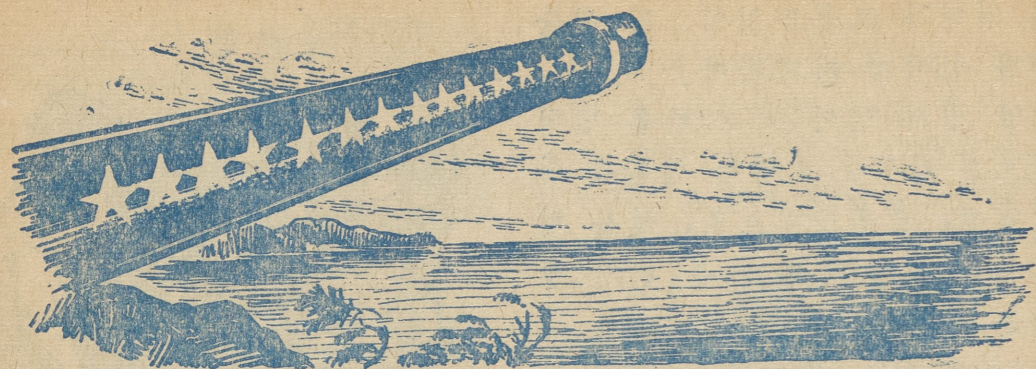
정자 언니는 끝없이 기뻐했다. 영예로운 로동당원이 된 기쁨으로 더 큰 일을 해낼 것을 언니는 또 결심하였다.

5초! 13초! 이것은 그전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시간인가! 그러나 정자 언니는 조금도 만족하지 않았다.

공장 간부들과 초급 당의 도움을 받아 쏘련의 훌륭한 기술을 배워 나간 정자언니는 8자형으로 직포기를 돌아 보며 북을 두개씩 써서 천을 짰다.

드디여 지난해 이른 봄에 이르러서는 직포기 8대를 맡게 되였으며 북 바꾸는 시간을 1초로, 실 잇는 시간을 11초로 더 쭈리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쭈린 시간으로 하루에 78m의 천을 더 짜내였다. 염 정자 언니는 지난해에 자기의 책임량을 444.8%

로 넘쳐 끝냈고 언니의 경험과 새기술은 녕변직물 공장에서 130%로 년간 계획을 완수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언니는 실을 아끼여 지금까지 2,757만 6천원의 리익을 나라에 주었다.

조국은 염 정자 언니의 이와 같은 빛나는 업적을 찬양하여 그의 가슴에 낫과 마치의 금메달과 국기 훈장 제1급을 달아 주었다. 새해부터 로력 영웅 염 정자 언니는 인민들에게 고운 옷감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하여 분초를 아끼여 비단을 짜고 있다.

오늘도 영웅 언니의 기대에서는 고운 비단이 쑥쑥 감기여 나오고 있다.

열네개의 별

——《민청호》 해안포 이야기——

일　　림

《민청호》 해안포 6호의 포신에는 오늘도 열 네개의 오각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별은 지난 전쟁 시기에 용감한 민청원 형님들이 바다의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때마다 그려 넣은 자랑스럽고 영예로운 표식입니다.

열 네개의 별, 그 속에는 참으로 민청원 해안포병들의 용감하고 대담한 이야기가 스며있습니다.

1951년 5월 《민청호》해안포병들에겐 대동강 앞 서해 바다에 나타난 적함선을 짓부시라는 전투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초소에 닿은 해안포병들은 짧은 시간 내에 튼튼한 포 진지를 만들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포진지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될 목재가 모자랐습니다.

목재를 가져 오려면 여기서 약 70리나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진종일 걸리는 길입니다. 이러는 동안이면 원쑤들의 함선은 함포 사격을 끝 마치고 도망치고 말 것이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중대 민청 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들 입술을 깨물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이때 한 구석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던 민청원 양 춘선 형님이 《제의가 있습니다》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에게 이 임무를 맡겨주십시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목재를 가져 오겠소》 중대 민청 위원장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보십시요, 뭍으로는 여기서 70리지만 바다로는 여기서 십리도 못됩니다. 난 이전에 '떼목'군이였습니다》.

형님은 자기의 결심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바다 우에는 원쑤들의 함선이 욱실거리고, 머리 우에는 적기가 쉴 새 없이 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 춘선 형님은 자기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끝내 목숨을 걸고 바다 우에 목재를 띄워 가지고 무사히 돌아 왔습니다.

이리하여 불과 몇시간 동안에 《민청호》 해안포 6호와 그리고 다른 해안포 진지들은 튼튼히 만들어지고 전투 준비는 갖추어졌습니다.

적 함선은 진종일 바다 우에서 지랄을 쳤습니다. 분노에 찬 포장의 사격 구령은 내렸습니다. 그러나 《민청호》 해안포가 쏜 첫번과 두번째 포탄은 적 구축함 곁에 산'데미와 같은 물기둥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다른 해안포들도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겁을 집어 먹은 적함은 방향을 돌리며 도망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민청호》해안포 6호가 쏜 세번째와 네번째의 포탄이 적함에 불기둥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해안포 6호에 그려진 첫번째 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을 이어 해안포 6호에는 별들이 늘어 갔습니다.

1952년 6월에 이르러서는 별은 열 세개로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 해안 방어선 가까이까지 달려 들었다가 침몰 당한 5척의 발동 소해정과 5척의 발동선, 2척의 목선이 들어 있습니다.

《민청호》 해안포 6호에 열 세개의 승리의 별이 빛나고 있던 그 어느날 최고 사령관 김 일성 원수께서 친히 이 해안포의 주인들을 만나려 오시였습니다. 열 세개의 승리의 별에 대한 용감하고 대담한 이야기를 듣고 나신 김 일성 원수께서는 포를 쓰다듬으며 해안포병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였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 우리들은 조국의 바다를 철석 같이 지켜 싸우겠습니다》.

《민청호》 해안포병들은 한결같이 김 일성 원수에게 뜨거운 맹세를 올리였습니다.

《민청호》 해안포병들의 뜨거운 맹세, 이 맹세는 또다시 사랑하는 자기들의 포에 열 네번째 승리의 별을 빛내게 하였습니다. 1952년 7월 무더운 여름날이였습니다. 바다 우에는 대형 구축함을 앞장에 세운 10여척의 적 함선이 거만하게 겁

은 연기를 뿜어 올리며 나타났습니다。 적함들에서는 무수한 포탄을 퍼부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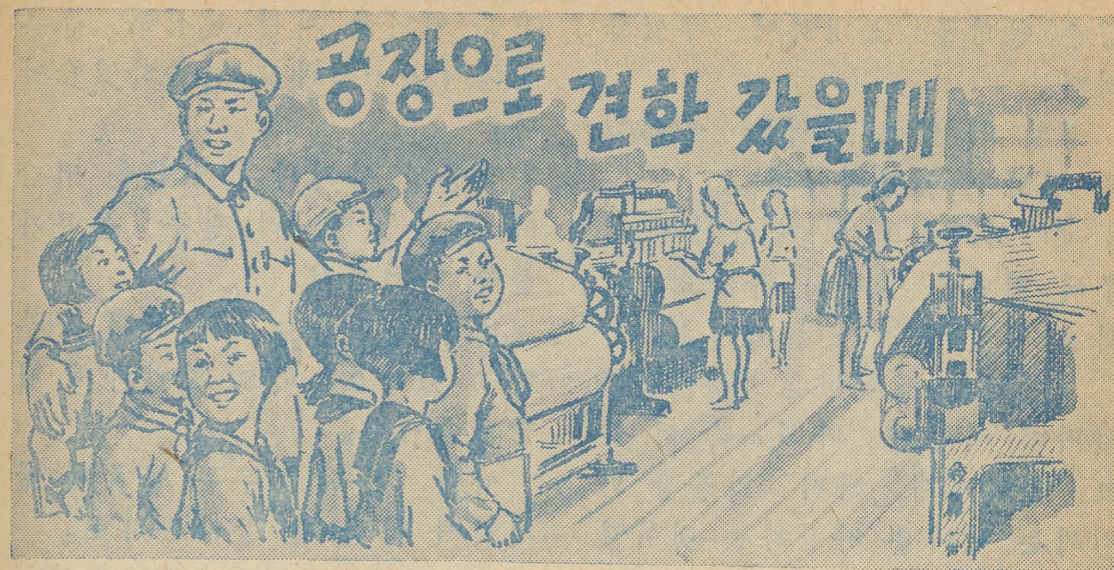
《사격 준비!》。

김 윤필 포장의 구령이 내리자 묘준수들과 포수들은 거리와 방향을 재이고 포신을 돌렸습니다。이때 《민청호》 해안포를 발견한 적기는 포진지 우에 수 없이 폭탄을 퍼부어 왔습니다。그리하여 포 진지가 무너졌고 그때마다 포병들은 흙 속에 파묻히우군 하였습니다。 포수들과 묘준수들의 눈 앞에는 검은 폭연이 가로 막혀 바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정치 부중대장의 웨침 소리가 울렸습니다。

《동무들! 우리들은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우리의 부모 형제들에게 포탄을 퍼 붓는 원쑤놈들에게 죽음을 주자!》。

정치 부중대장의 이 웨침 소리는 모든 민청원 해안포병들의 가슴에 적에 대한 불 같은 적개심을 더욱 불러 일으켰습니다。 묘준수들은 참을 수 없는 이 원쑤에 대한 적개심으로하여 폭연 속에서도 바다의 강도배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포수들은 첫 포탄으로 적함을 맞힐 수가 있었습니다。

첫 포탄에 맞은 적 구축함이 시뻘건 불기둥 속에 쌓인채 성난 바다 속 깊이 잠겨 들어갈 때 포 진지에서는 모든 해안포병들과 함께 민청원 해안포병들의 열 네번째의 승리의 함성이 올랐습니다。

그들은 이 기쁨을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수령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수령이 계신 평양을 향하여 《최고 사령관 김 일성 원수이시여! 당신의 전사들인 우리들은 또다시 열 네번째의 승리의 별을 빛내였습니다》 라고 자랑찬 목소리로 웨쳤습니다。

평북 녕변 인민 학교 대 제4 분단

위원장 정 창 옥

지난 일요일 우리 분단에서는 즐거운 공장 견학을 갔습니다。

우리들은 직공장 안 중권 아저씨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깨끗하고 화려하게 꾸며진 공장 안에서는 수많은 기대들이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일제히 돌아가고, 언니들은 정말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나름실을 들여다 보며 끊어진 실오리들을 잇고 북실을 바꾸어 넣는 언니들의 손과 손은 나는듯이 움직였습니다。

아저씨는 《이 언니들이 짜고 있는 것이 바로 비단천입니다。 참 아름답지요》 하고 웃으며 말씀하였습니다。

언니들이 짜내는 고운 비단을 본 우리들은 모두 인민들에게 더 고운 옷감을 많이 보내 주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친절히 우리들을 안내해 주시던 직공장 아저씨는 《그럼 어떻게 비단천이 되는가를 말할가요!》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좋은 비단천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의 로력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더 많은 비단천을 짜기 위해서는 뽕나무를 많이 심고 누에도 더 많이 쳐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였습니다。

직공장 아저씨는 견직공 언니들의 기대를 돌보시다가 《이 언니가 이번에 국기 훈장 제1급을 받은 최 명순 언니입니다》 하며

명순 언니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정말 최 명순 언니는 솜씨있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최 명순 언니는 하루에 비단을 얼마나 짜나요?》 하고 청실 동무가 물었지요.

《언니의 책임량은 8 m이지만 날마다 책임량보다 4 m를 더 짜고 있답니다》하며 직공장 아저씨는 언니를 자랑하는 것이였지요.

《야! 일년이면 1400 m를 더 짜게 되겠네》하고 산수를 잘하는 승현동무가 어느새 계산했는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모두들《언니는 참 나라에 많은 리익을 주고 있구나》하고 감탄하였지요.

이때 직공장 아저씨는 벙글벙글 웃으시며《소년단원들도 견직공 언니들 처럼 열심히 공부할테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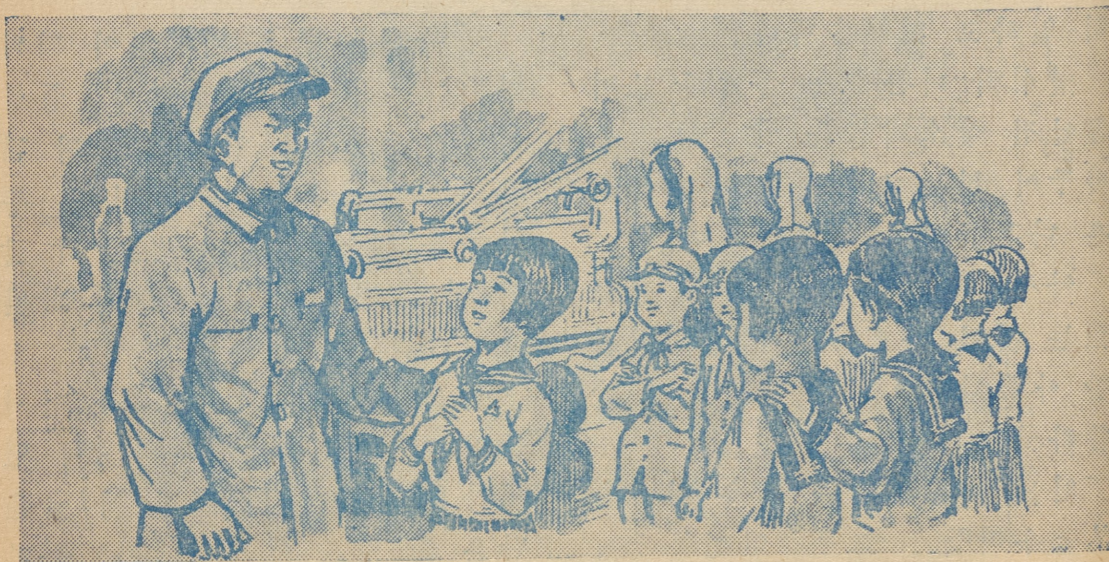
직공장 아저씨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던 리 광수 동무가 불쑥 나서면서

《네! 우리들도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어요》하고 활발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진옥 동무는 얼굴이 빨개지며 어쩔 줄 몰라했지요.

진옥 동무는 최우등을 하는 리 광수 동무의 대답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그만 부끄러워졌습니다.

《뭐 오늘 하루쯤이야 래일하면 되겠지!》하고는 자주 숙제를 잊어버리고 놀기만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점점 진옥 동무의 성적은 뒤떨어져만 갔고 지난번

산수 시험에서는 2점을 받았던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일분 일초를 다투어 일하는 공장 언니들을 본 그는 지나간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되였습니다.

《나도 꼭 언니들처럼 시간을 아껴 가며 부지런히 공부할테야》

하고 마음 속 깊이 다진 진옥 동무는 머리를 들어 직공장 아저씨의 앞으로 나서며《아저씨! 앞으로 나도 언니들 처럼 열심히 공부하겠어요》하고 큰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아저씨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며

《참 소년단원들은 훌륭하군……》

하고 진옥 동무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가지 색갈로 물들인 고운 비단들을 구경하고 구락부에 나와 제1교대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작업 교대의 싸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때 하루일을 마친 언니들이 웃음 띈 얼굴로 구락부에 모여왔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준비해 가지고 갔던 노래와 춤을 언니들에게 보여 드렸지요.

그리고 모범 로동자인 최 명순 언니와 제1 브리가다 반장인 장 영자 언니를 모시고 더 많은 비단천을 짜기 위해서 애써 오던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공장 언니들처럼 열심히 배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며 한결 가벼운 걸음으로 공장을 나섰습니다.

박 인 범

산 기슭 어느 마을 양지 바른 마당입니다.

노란 병아리와 재'빛 병아리 그리고 얼룩 병아리들은 이쁘게 몸 단장들을 하고 달음박질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닭이 서 있는 장독대를 한번 돌아 울타리를 한바퀴 돌아 오집니다.

《하나, 둘, 셋》 노란 병아리가 구령을 부르며 자기도 함께 뛰여 나갔습니다.

《쫑쫑 쫑쫑》 지껄이며 서로 일등을 하겠다고 날개를 팔랑 팔랑 거리며 세차게 달립니다. 병아리들은 울타리를 돌았습니다. 맨 앞장으로 들어 온 재'빛 병아리가 훨훨 날개질을 치며 《내가 일등!》하고 숨찬 소리로 뽐내면서 뛰여 들어 왔습니다.

《난 이동!》.

《내가 삼둥이야 괘니!》.

삼등으로 들어 온 노란 병아리까지 모두 엄마에게서 상을 타고 뽐을 냈지만 제일 끌찌로 따라 온 얼룩 병아리만은 그만 심술만 났습니다.

《안돼, 안돼, 뭐, 내가 일등을 할건데 뭐. 막 남을 밀치구 나왔지……》하고 일등 상을 받은 재'빛 병아리에게 덤벼 들어 상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것을 본 엄마 닭은 얼룩 병아리에게도 작은 밀알 한개를 주며 타일렀습니다.

《또 욕심이 나왔구나. 욕심을 부리면 못쓴대두……》.

《작은 밀알은 싫어……》하고 그대로 심술을 부리는 것입니다.

《힘껏 뛰여서 일등을 하지…》 하고 재'빛 병아리도 정답게 일러 주었습니다.

얼룩 병아리 하나 때문에 달음박질 내기는 아주 재미 없게 되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병아리들 앞으로 딱정벌레 한 마리가 날아서 지나 갑니다.

《딱정벌레, 딱정벌레》하며 병아리들이 쫓아 나섰습니다.

날쌘 노란 병아리가 깡충 뛰여 오르며 딱정벌레를 《콕》한번 쪼아 주었습니다. 재'빛 병아리도 깡충 《콕》쪼아 주었습니다. 딱정벌레는 더 날지 못하고 그만 비슬비슬 얼룩병아리 앞에 떨어졌습니다. 얼룩 병아리는 냉큼 딱정벌레를 주었습니다.

《내가 잡았어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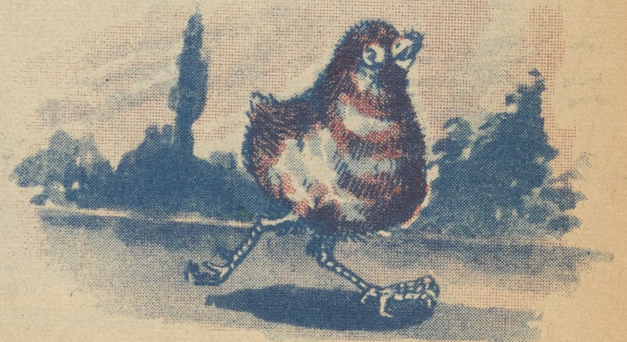
병아리들은 우루루 그리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병아리들은 멈칫 뒤로 물러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얼룩 병아리가 막아 서서 딱정벌레를 구경도 못하게 한 까닭입니다. 얼룩 병아리는 딱정벌레를 입에 물고 산 기슭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룩 병아리는 뒤에서 동무 병아리들이 쫓아오는 것만 같아서 날개짓을 하며 줄창 내달렸습니다. 한참 동안 뛰여 가던 얼룩 병아리는 숨이 가빴습니다. 얼룩 병아리는 물고 가던 딱정벌레를 돌 우에 올려 놓고 《헉헉》 숨을 돌리며 뒤를 돌아 보았습니다. 아무도 뒤따라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찌 궁 찌 궁 찌찌 궁》하고 산 골짝에서 무당새 한마리가 꽁지를 깝죽거리며 날아 왔습니다.

턱 밑과 꽁지 속털이 진홉빛처럼 붉은 무당새는 얼룩 병아리가 물고 온 딱정벌레를 들여다 보고 물었습니다.

《딱정벌레를 누가 잡았니??》.

얼룩 병아리는 얼른 《내가》하고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만에야 《저—내가》 하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야—용쿠나》。

무당새는 돌 우에 놓인 딱정벌레만 들여다 보면서 발라 맞히는 것입니다.

《애 얼룩아, 그렇지만 너 이렇게 생긴 딱정벌레를 그대로 먹었다간 큰 일 난다》 하고 시침이를 따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얼룩 병아리는 가슴이 선뜻해서 물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먹으면 배탈이 난단 말이야。알기나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얼룩 병아리는 더욱 걱정스러워서 물어 보았습니다.

《응 이건 저 높은 산 골짝에 있는 약물에 깨끗이 씻으면 먹을 수 있지!》하고 무당새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거길 갈 수가 있어야지》。

얼룩 병아리는 무당새 앞으로 다가 서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무당새는 냉큼 딱정벌레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얼룩 병아리야, 내가 얼른 약물에 씻어 가지고 올테니 어디 가지 말고 꼭 여기서 기달려라 응》。

무당새는 딱정벌레를 덥석 입에 물더니 산 넘어로 후루루 날아 갔습니다。멀리 멀리 나중에는 아주 보이지도 않게 날아 갔습니다.

얼룩 병아리는 무당새가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인제 곧 돌아 올테지—하고。

그러나 무당새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룩 병아리는 그만 울'상을 했습니다。 무당새는 거짓말로 얼룩 병아리를 속여 넘기고 딱정벌레를 빼앗아 가지고 달아난 것입니다。 얼룩 병아리는 혼자서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쫑쫑 쫑쫑 쫑쫑》

동무 병아리들의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빛 병아리가 먼저 얼루기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다, 얼루기—》 하고 동무 병아리들을 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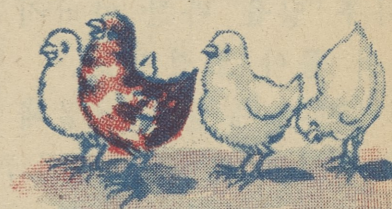
《어디?》。 동무 병아리들이 모여 왔습니다.

그러나 얼룩 병아리는 고개를 숙인채 동무들을 거들떠 보지도 못합니다。얼룩 병아리는 점점 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우니?》。

얼룩 병아리 어깨 우에 손을 얹으며 동무 병아리들이 사이좋게 물었습니다.

얼룩 병아리는 그제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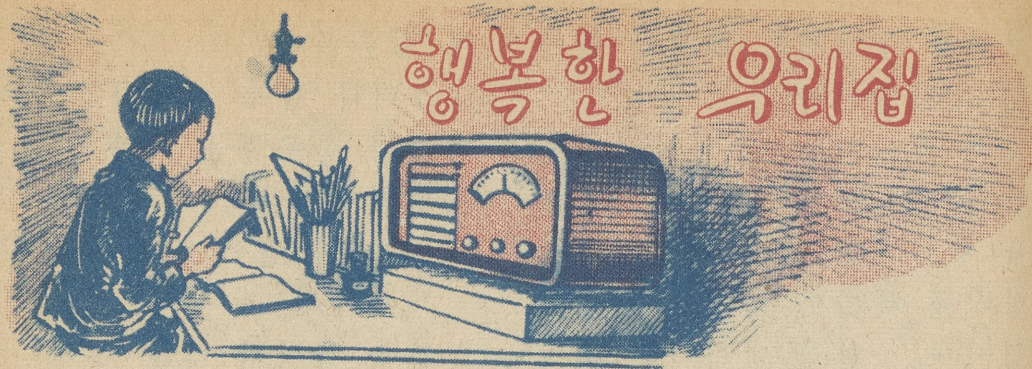
《난 인제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을래》 하고 말했습니다.

부러운 형님

함북 무산군 온천 인민학교
5학년 리 기 영

형님은 까소링차 운전사지요
낮과 밤 가림없이 까소링차 몰아
건설장에 보내는 나무를 나르지요.

형님은 까소링차 운전사지요.
오늘도 나무 싣고 우리 앞길 지나며
어서어서 잘 배우라 손을 저어요.

나는요 우리 형님 참말 부럽죠.
형님 차 볼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
나도 커서 형님처럼 운전사가 되고 싶어요.

행복한 우리집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책상에 마주 앉아 력사를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루 일을 마친 아버지가 공장에서 돌아 오셨지요.

아버지는 유달리 얼굴에 기쁨을 띄우시고 온 집안 식구들을 번갈아 보시더니 상장과 상품을 내놓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손에서 얼른 상장을 받아 펴 보았지요.

꽃테두리 상장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큼직하게 씌여 있었습니다.

이번 증산 경쟁 운동에서 일을 잘 하여 모범이 되였다고 아버지를 칭찬하는 상장이였지요.

나는 너무도 기뻐서 아버지 품에 안기며 《아버지는 참 훌륭한 로동자야》 하고 마음 속으로 웨치며 자랑하였습니다.

그새에 어머니는 상품을 헤쳤지요.

어머니의 손에는 뜻밖에도 내게 알맞을 양복과 학습장, 연필들이 쥐여져 있었습니다.

《야 내 양복!》하고 나는 막 손벽까지 쳤지요.

참 좋은 양복이였지요. 나는 그자리에서 입고 아버지에게 보여 드렸습니다.

내 동생은 학습장과 연필을 쥐고 깡충깡충 뛰며 기뻐했습니다.

지난해에 마련한 책상 우의 라디오는 즐거운 노래를 보내주어 기쁨에 찬 우리집을 더욱 더욱 흥겹게 해주었습니다.

참 우리 집은 행복하지요.

아침마다 아버지가 공장에 나갈 때면 나와 동생은 학교로 가고 어머니는 녀맹에 나가서 일 보십니다.

하루 일을 마친 온 집안은 저녁이면 한 자리에 마주 앉아 하루 동안의 즐겁던 이야기를 나누지요.

일요일은 더욱 즐겁답니다.

우리집 식구들은 손목을 잡고 붉은 벽돌집 사택들을 지나 공원이나 로동 회관에 가기도 합니다.

그럴때마다 나는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품 속에서 즐겁게 배우며 자라는 기쁨으로 가슴이 흐뭇해진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제 시대에도 로동을 하였으나 우리 집의 살림 살이는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는 집도 없이 쫓겨 다니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군 했답니다.

《광익아! 우리 조국은 참 행복하지 네가 커서 일할 때가 되면 참 굉장할 게다. 큰 공장도 많이 서고 농사도 온통 기계로 하고……。

너는 잘 배워서 훌륭한 일'군이 되여야 한다》。

아버지는 내 손목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였지요。

나는 날마다 공장 굴'둑에서 하늘 높이 솟는 검은 연기를 바라 볼 때마다 마음 속 깊이

《나도 크면 아버지처럼 공장에서 일을 할테다》。

하고 굳게 결심을 다집니다。

홍남 제3 인민 학교 대 제3 분단
리 광 익

그가 심은 종자 배추

…원산 사전 부속 인민 학교 대 제8 분단에서…

신 진 균

어느날 자연'과 시간이였습니다.

선생님은 흑판에 걸어 놓은 배추꽃 괘도를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정호와 주관이 그리고 모든 동무들의 머리 속에는 선생님의 설명이 잘 들어 왔습니다. 바로 그들이 정성껏 가꾸며 관찰해 오던 배추꽃을 설명하셨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끝나자 그들은 곧 실습지에 달려 나갔습니다.

200평 남짓한 실습지에는 열마전에 온상에서 옮긴 고추, 오이, 호박이며 가지, 일년감, 양배추들이 싱싱 자라고 있었습니다.

노란꽃을 활짝 피운 배추꽃과 보라색 무우 꽃엔 아름다운 봄나비들이 춤을 추며 날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얘! 주관아 저 나비들을 좀 봐! 인젠 곧 배추꽃이 열매를 맺을거야》하며 정호는 무척 기뻐합니다.

한참 나비들을 바라보던 주관이는

《나비들도 꽃이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도움을 주지요》라고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날 정호의 도움을 받아 종자 배추를 심던 때의 일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　*　*

분단에서 봄맞이 계획을 의논할 때까지만 해도 주관이는 실습지에 재배 식물을 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밀, 보리, 감자 같은거야 흔히 볼 수 있는거구 꽃도 보잘 것 없는걸…》.

이렇게 생각하며 분단의 봄맞이 계획을 은근히 나무럼 했습니다.

《지난해 처럼 아름다운 꽃들이나 화단에 가득 심고 학교를 더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그는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후 분단에서는 3학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온상 모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무들은 퇴비, 우마분, 쌀겨 등을 모으는 일과 함께 여러가지 재배 식물의 종자들을 모으며 온상 모들을 옮겨 심을 실습지의 발갈이들에 다같이 힘써 나섰습니다.

그러나 주관이는 종자를 모으는 일이나 실습지를 갈아 엎는 일에 때때로 나가지 않았지요.

하루는 주관이네 반동무들이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주관이도 화단 정리엔 누구보다 열성을 내였습니다.

봉선화, 코스모스, 백일홍들과 다리야, 국화꽃, 무궁화 등의 뿌리들을 정성껏 심고 나서

《얘 넌 밀, 감자꽃보다 봉선화나 다리야 꽃이 더 아름답지 않니?》하고 주관이는 반장 정호에게 물었습니다.

《그야 봉선화나 다리야가 더 아름답지》。

《그런데 왜 우리 분단에선 그런 것들을 심느라고 야단이야!》하며 주관이는 입을 실죽해 보였습니다.

뜻밖의 물음에 정호는 《넌 그래 실습지를 가꾸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댔구나?》하고 도로 물었습니다。그러나 주관이는 아무 말없이 서고만 있었습니다.

《얘 주관아! 우리가 실습지를 가꾸려는건 아름다운 꽃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손으로 재배 식물들을 가꾸며 배워 나가자는데 있어》라고 정호는 다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관이는 《아니 우리가 농사'군인가 뭘…》하며 그대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얘 우리는 앞으로 농산 기사가 될 수도 있지 않니, 언젠가 선생님도 우리 나라의 농촌에는 더 많은 농업 기술자가 요구된

다고 말씀하지 않던,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자연'과에서 밀, 보리, 감자, 오이 등 재배 식물들을 배우게 되거든。그때엔 실습지가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게 아니냐》하고 정호는 말했습니다。정호의 말이 옳았습니다。주관이는 대'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날에야 주관이는 《정호야! 난 잘못 생각했어, 난 다만 학교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꽃밭만 가꿀걸 생각했어!》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하여 주관이는 정호네 집에서 배추 뿌리를 얻어 왔고 석이에게서 시금치 뿌리를 얻어다 정호와 함께 실습지에 심었습니다。그리고 그는 매일 같이 물도 길어 주며 정성껏 가꾸기 시작했지요。배추와 시금치는 날마다 잘 자라났습니다。

* * *

지금 주관이와 그리고 분단 동무들이 심은 배추꽃이 활짝 핀 실습지에는 분단 동무들이 막 모여 왔습니다。

《배추꽃은 꽃'잎이 네개라고 했었지》하고 용석이가 말하자 무우꽃을 살펴 보던 현옥이가 《무우꽃도 꽃'잎이 네개야》하고 소리쳤습니다。

《애들아! 배추와 무우꽃은 모두 십자'과 식물이 아니냐》하며 주관이가 자랑스레 대'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배운 배추꽃의 모양과 크기, 꽃의 화분들을 흥미있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참 자기의 일지에 배추꽃이 활짝 핀 모양을 그리고 있던 주관이가

《정호야, 우리 가을에 또 이 종자를 심어 보자》。

《좋은걸 생각했어 가을에도 또 실습지를 훌륭하게 가꾸어 나가자》。정호도 자기의 결심을 다지며 주관이에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래년부터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된다=

성혜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오빠를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가 철이의 손목을 잡아 흔들며 집으로 들어 왔습니다。

《오빠! 오늘 내 이름을 적어 갔어, 선생님이랑 와서 내 이름을 적어 갔어》하고 성혜는 깡충깡충 뛰며 기뻐했습니다。

《몹쓸 자난을 한다고 적어 갔겠지?》하고 철이는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이제 한살 더 먹으면 꼭 학교에 오라고 했어!》하고 성혜는 학교에 가면 공부도 으뜸을 하며 노래와 무용도 다른 애들에게 지지 않겠다고 자기 자랑에 신이 났습니다。

《이제 한해만 있으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국에서는 학교에 갈 나이가 차는대로 모두 인민 학교에 다닐 수 있단다…》。

철이는 책상을 단정히 거두며 전번에 선생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성혜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성혜야, 지난 3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열렸던 최고 인민 회의 제9차 회의에서는 1956년 8월1일부터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 하기로 했단다》。

《오빠!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가 뭐니?》。

《너는 아까 나보고 자랑했지。선생님이 꼭 학교에 오란다고—。학교에 들어갈 나이 (8세)만 되면 누구나 다 인민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는거란다。모든 사람을 훌륭한 일'군이 되도록 나라에서 공부시켜 주지!》。

《그렇게 학교가 많니?》。

《걱정 없어! 내가 인민 학교에 들어간 해인 1950년부터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게 되여 있었단다。미국놈들과 리승만놈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학교를 불질렀기 때문에 못했지。원쑤놈들이 학교를 많이 폭격해 버렸지만 벌써 2층 3층 학교를 수많이 새로 짓고 복구했단다。이

제 올해에는 의무 교육제를 실시할 모든 준비를 갖춘단다…》。

《오빠! 이것도 김 일성 원수님의 덕택이겠지》。성혜는 아버지가 행복한 살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원수님의 은혜라고 하시던 말씀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항상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김 일성 원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고 계시지! 굉장히 큰 공장들이 우뚝우뚝 솟아나며 농업 협동 조합들이 늘어가고 우리 나라는 날마다 행복해저만 간단다。 우리는 크면 훌륭한 기술자가 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의 주인이 되지!》。

《맏언니처럼 나도 대학엘 가서 기술자가 되여야겠네!》。

《어느 대학에 가겠니? 그때엔 여러가지 대학이 많아진단다。 자기 마음에 맞는 대학을 골라야지!》。

《대학만 많아지나?》。

《왜 그렇겠니? 다른 학교도 많아지지。 공장에서 일할 기술자들과 농업 협동 조합에서 일할 기술자들을 키워낼 공업 전문 학교들과 농업, 수의 축산 전문 학교들도 많이 생긴단다》。

《아이 좋아! 빨리 한해가 지나면 좋겠네! 빨리 인민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그래야 전문 학교를 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할게 아니야!》하고 벽에 모신 원수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보는 것이였습니다。

《그럴라면 공부를 잘 해야 한다!》。

《나도 학교에 가면 오빠처럼 최우등을 하겠어!》。

《그런데 우리들은 남반부 소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 리승만 역도놈들은 의무 교육제는 고사하고 학교를 빼앗아서 병사로 만들고 학생들을 거리로 내쫓고 있단다。그리고 청년 학생들을 대포밥으로 몰아내려고 야단이지。이번에 공화국 정부에서는 남반부 학생들에게 행복한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들이 공부하려고 공화국에 들어 온다면 언제든지 학교에 받아 들이며 외국 류학까지도 나라의 돈으로 보내 주기로 결정했단다。그리고 무료로 주는 옷, 신, 학용품과 장학금 1천—1천 5백원을 이미 남반부에서 들어 와 일반 장학금보다 80%를 더 받으며 우대를 받고 있는 학생들 보다도 더 주게 되였지。 남반부 학생들은 이 소식을 퍽 기뻐할게다。

남반부 소년들도 우리들처럼 공화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공부할 날이 빨리 오면 좋겠지!》。

《응!》。

《우리들은 참 행복하지! 선생님은 나라의 은혜를 갚으려면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하셨다。자 공부를 하자!》。

성혜는 그림책을 펴들었고 철이는 책상에 마주 앉아 복습을 시작했습니다。

정남이에게 있은 이야기

김 도 빈

정남이는 진종일 놀음에 지쳤다가 밤에야 숙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어 숙제는 이럭저럭 하였으나 산수 숙제는 너무 졸리여서 엎드려서 간신히 첫문제를 풀고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었지요。

정남이가 눈을 떴을 때는 창문에 해'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였습니다。

토방에서는 병아리들이 쫑쫑거리고 마당에서는 참새들이 재재거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엔 안가고 잠만 잘래? 다른 아이들은 다 갔는데—》。

이때 밖에서 놀고 있던 손아래 누이동생인 인숙이가 뛰여들어오며 자기 오빠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정남이는 후닥닥 일어나면서 덤벼대기 시작 했습니다。

《뭐야? 야! 이거 늦지 않았니?》。

정남이는 되는대로 이불을 둘둘 말아서 그것을 방 한 구석에 밀어놓고 급히 책가방을 어깨에 둘러 메였습니다。가방은 빈 가방이였습니다。 눈에 뵈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교과서며 학습장을 책가방에 막집어 넣고서 인숙에게 물었습니다。

《얘! 인숙아! 내 밥은?》。

《부뚜막에 있어》。

책가방을 어깨에 멘채 정남이는 부엌으로 뛰여 나갔습니다。 부뚜막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찌개 그릇들이 소북히 놓여 있었습니다。

급히 밥을 먹다 말고 정남이는 자기 누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인숙아! 넌 밥 안먹을래?》。

《나! 난 아까 먹었어。엄마하고 같이 먹었는데》。

《어머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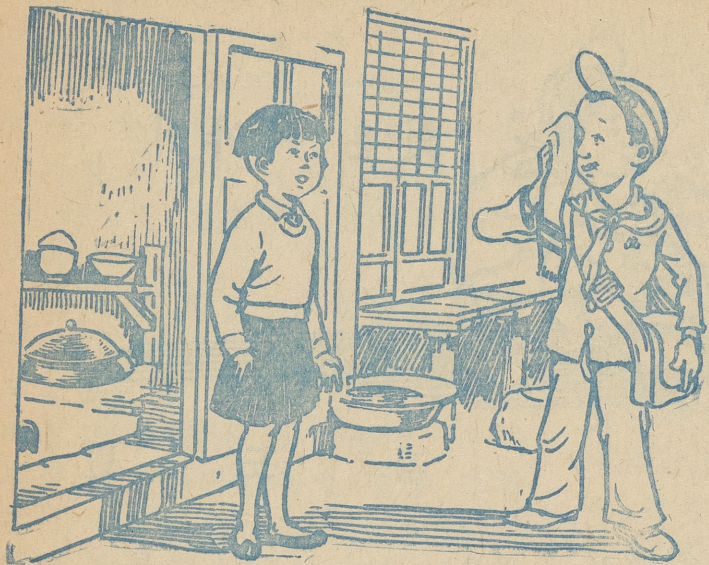
《엄만 발에 가셨지 뭐!》。

대충 열른 밥을 먹은 후 정남이는 밖으로 뛰여 나갔습니다。인숙이는 뛰여 가는 정남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세수도 안하고 가?》。

《아! 참! 깜박 잊었구나! 수건을 내다우! 열른!》。

되 돌아온 정남이는 인숙이가 내주는 세수 수건을 받아 들고 토방에서 얼굴을 두어번 문지른 후

《됐지? 세수한것 같지 애?》

하고 세수 수건을 방안으로 내던지며 학교로 향하여 뛰여 갔습니다。학교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정남이는 곧 학교에 다달았습니다。운동장에 척 들어서자 상학종이 울렸습니다。정남이는 그달음으로 교실안으로 뛰여 들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정남이는 숨이 가쁘고 머리가 휭했습니다。숨을 헐덕이며 자리에 앉은 정남이는 가방에서 교과서와 학습장을 꺼내여 책상 우에 놓았습니다。

첫 시간은 국어 였습니다。독법 숙제는 전부 해 왔기때문에 정남이는 머리를 번쩍 들고 앉았습니다。그러나 시간이 다 가도록 선생님은 한번도 정남이에게 묻지도 않고 지명도 하시지 않았습니다。정남이는 좀 서운했습니다。

둘째 시간은 산수였습니다。

《내게 첫 문제를 풀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

정남이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자기를 지명해 달라는 듯이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 보았습니다。

《첫 문제를 할 학생은 손을 들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나오자마자 모두들 손을 쑥쑥 처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둘러보지더니 정남이를 지명했습니다。

《자! 정남이가 나와서 풀어요!》。

자기 소원대로 지명을 받은 정남이는 몹시 기뻤습니다。

정남이는 국어 학습장 밑에 있는 다른 학습장이 으레히 산수 학습장인 줄로만 알고 보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척척 교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교단에 올라서자 정남이는 학습장을 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가슴은 두근거렸으며 정남이는 머리를 끼우둥 거리면서 학습장을 이리 들치고 저리 들치며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산수 문제는 하나도 씌여 있지 않았습니다。그렇다고 국어나 서'법 학습장도 아니였지요。

《왜 학습장만 들치적거려요?》

하고 선생님이 곁에와 서시였습니다。

그러나 정남이는 그냥 학습장만 들치적거리기만 했습니다。

정남이의 학습장에서 선생님은 이런 글자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평화적 조국 통일》。

《3.8 국제 부녀절》。

선생님은

《건 무슨 책이냐?》

하며 학습장 뚜껑을 보지였습니다。뚜껑에는 정남이 어머니의 이름이 씌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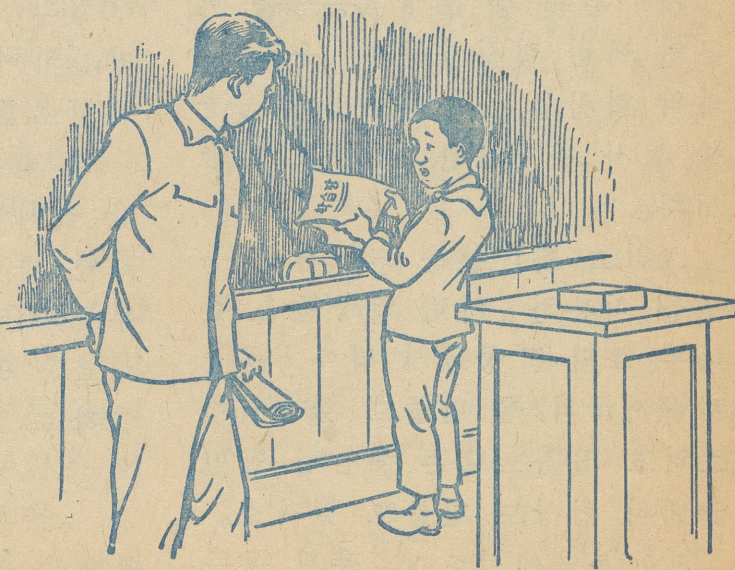
《건 어머니의 학습장이로구나!》

하고 선생님은 말씀하고는 다른 아이를 다시 지명했습니다。

지명을 받은 다른 아이는 교단에 올라가서 산수 문제를 척척 풀어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교실 이구석 저구석에서는 아이들의 킥킥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자리에 돌아와 앉은 정남이는 칠판을 달리는 백묵 소리를 들으며 머리를 숙으렸습니다。

정남이에겐 《어머니의 학습장이로구나》라고 한 부드러운 선생님의 말씀이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흙먼지가 낀 자기 손'등이 눈에 띄이자 더 한층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들의 명절맞이

우리들의 명절—소년단 창립 아홉돐을 앞두고 우리 학교 대에서는 여러가지 재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분단들에서는 소년단 돐맞이 명절에 열릴 전람회 준비에 재간 있는 솜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4 분단 강 용구 동무를 비롯한 어린 력사가들은 우리 나라의 력사를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력사 년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 분단 황 경택 동무를 비롯한 어린 목공들은 큰 나무 토막을 둥글게 깎아 훌륭한 《지구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흙으로는 용감한 인민군대의 립상도 만들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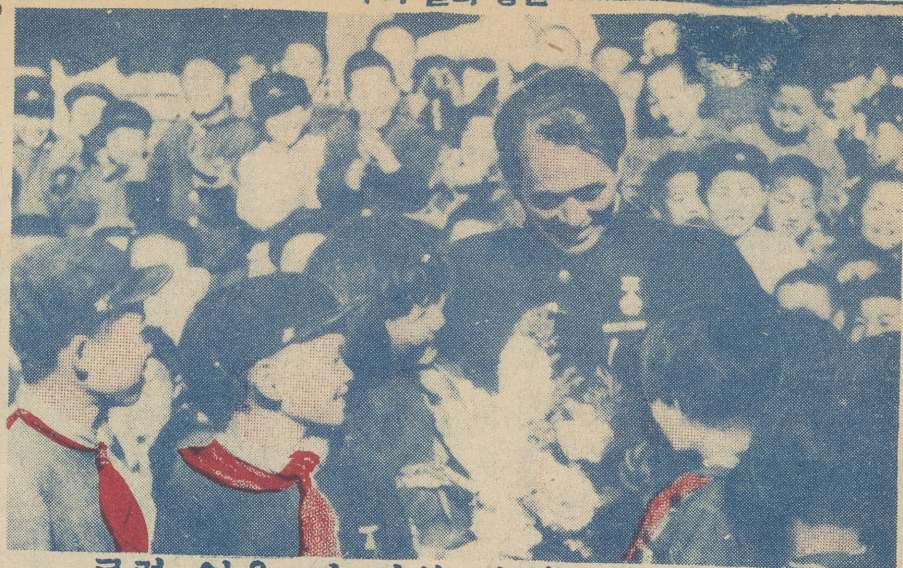
제5 분단에서도 조 춘재 동무를 비롯한 어린 식물학자들이 교재원의 식물들을 가꾸면서 재배식물의 표본들을 만들고 있답니다.

이 훌륭한 작품들은 머지 않아 전람 회장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편 대 벽보 편집부에서는 《6월의 기쁨》 이라는 특집호를 발간하며 각 분단들에서도 각각 특집호를 발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 기념 체육 연예 모임을 위하여 여러가지 경기와 마스겜 준비, 그리고 《산 속의 동무들》이라는 연극을 비롯하여 새로운 노래와 춤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안악 류설 인민 학교 대
통신원 **김 보 옥**

우리 들의 통신

—로력 영웅 전 성복 아저씨를 모시고—

우리들은 교문을 들어서는 로력 영웅 전 성복 아저씨에게로 막 달려 갔지요.

꽃보라를 뿌리며 꽃다발을 들고 아저씨를 둘러 싸고 기뻐들 했답니다.

《아저씨! 우리들은 아저씨처럼 훌륭한 일'군이 되겠어요。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하고 모두들 아저씨의 금메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지요.

해방전 열두 삼천리' 벌 농민들의 쓰라린 생활도 이야기하였고, 해방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되여 행복하게 농사 지어 쌀을 많이 거둔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하여 주시였답니다.

우리들은 전쟁 시기에 아저씨가 갖은 곤난을 이겨내고 증산 투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모두 감탄했습니다.

《우리 협동 조합은 쏘련의 꼴호즈처럼 훌륭하게 발전할 것입니다》하고 아저씨는 우리 나라 농촌이 더한층 꽃피여날 앞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아저씨! 나는 농업 기술자가 되고 싶습니다》하고 리 창엽 리 경화 동무들은 말하며 지금부터 학교 실습지에서 열심히 배우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는 퍽 기뻐하시며 《우리 나라에는 많은 농업 기술자가 요구됩니다》하고 말씀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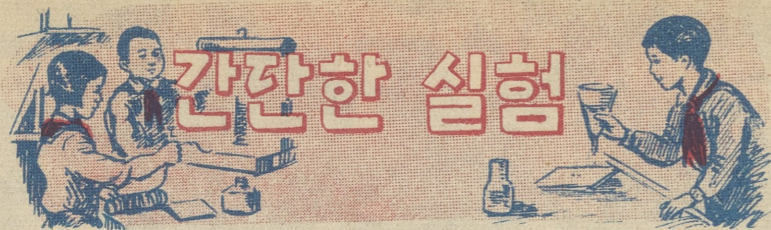
우리들은 모두 아저씨처럼 훌륭한 일'군이 될 결심들을 다졌습니다.

평남 안주군 원흥 인민 학교 대
김 봉 돌

검 사 제

☆

12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자연'과 시간에 《토양에는 염분이 있다》는 것을 배운 우리 분단 어린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분단 동무들 앞에서 훌륭히 실험해 보였습니다.

어린 과학자들은 바다'물을 쪼리여 소금을 얻는 방법으로 실험했습니다.

이들은 맑은 물이 들어 있는 병에 흙을 절반쯤 넣고 흔들어서 흙물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흙물을 려과기로 려과시켜 맑은 물이 되게 한후 유리판에 붓고 열을 가했더니 물은 차츰 증발되고 밑에는 하얀 가루가 남았습니다.

가루는 짠맛이 났습니다. 어린 과학자들은 《야! 정말 소금이야!》하고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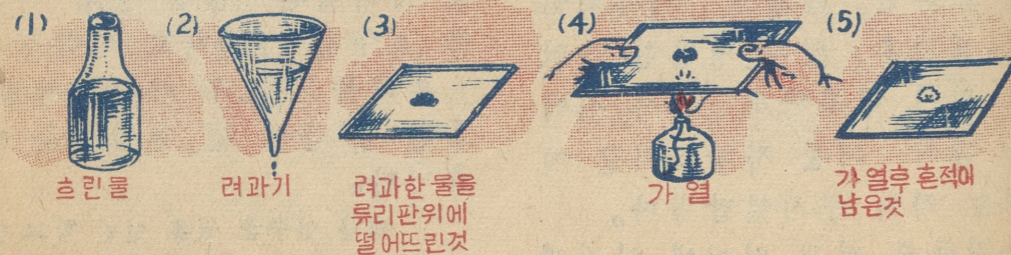
이처럼 실험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넓히고 있는 어린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물방아, 배, 바람개비 등도 계속 만들어 자연'과 공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자연'과에 재미를 못가지던 리 정전 동무도 자연'과 실험을 통하여 점점 자연'과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되였습니다.

정전 동무는 지금 열심히 실험에 참가하여 배운 지식을 더욱 넓고 깊게 하고 있습니다.

황남 송화군 명례 인민 학교 대
제1 분단 공 의 주

어떤 사람으로 될가?

브·마야꼽쓰끼

(전호에서 계속)

푸른 것,
　빨간 것,
　　하늘색!》
우리는
레일을 달린다.
레일이 끝나면
수풀 곁에 내린다.

차장도 좋지만
운전수는— 더욱 좋지.

난 운전수가 되였으면—
나를 배워주면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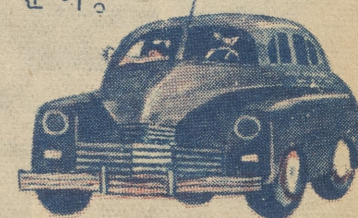
공장에서도 좋지만
전차에서도—더욱 좋지
난 차장이 되였으면—
나를 배워주면 되지.

차장은
　어디든지 간다—
큰 가죽 가방 메고
언제나
　온 종일
전차를 타고 다닌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들 차표 끊으세요!
차표는 여러가지
마음대로 끊으세요—

퍼르치뜨는 빠른 자동차
미끌어질듯 달린다.
나는 훌륭한 운전수—
아무도 세우지 못한다.

말만 하세요
가야할 곳을,
레일 없이도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데려다 준다.

뿡 뿡
신호를 울린다。
《길을 비끼시요!》。

운전수도 좋지만
비행사로 되는 것은— 더욱 좋지

난 비행사가 되였으면—
나를 배워주면 되지。
땅크에 휘발유를 넣고
프로페라를 돌린다。

《모타야 하늘로 실어가라
아래에서 새들이
떼지어 노래할 수 있게》。

두려울 것 없다。
비도
안개도
흘러가는 구름도 뚫고。
흰 갈매기 마냥

바다를 건너
거침 없이
산을 날아 넘는다。

《실어가라 모타야
별나라까지
달나라까지
달나라와 별나라가
아무리 멀지라도》。

비행사도 좋지만
수부는—더욱 좋지

난 수부가 되였으면—
나를 배워주면 되지。

모자엔 리봉
어깨엔 닻。
한 여름 나는 항행한다。
대양을 정복하면서

파도는 심술궂게 일어도
그러나 돛살과 돛대로

마음대로 간다。

휘몰아쳐라, 눈보라。
불어라, 폭풍—。
뚫고 가련다
남극을
북극은—물론

책을 다 번졌으면
잘 기억해 두라—
무슨 일이든 다 좋다。
마음대로
고루라!

강 효 순

광호와 윤식이는 굴렁쇠를 굴리며 많은 사람들과 자동차들이 분주히 오고가는 네거리로 달렸습니다. 네거리 한 복판에 서 있는 교통 정리원 누나가 호각을 불며 신호하면 멎었던 자동차와 많은 사람들은 길을 건너 갑니다. 다른 편으로 건너 가려던 자동차와 손님들은 우뚝 서고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광호는 어쩌자고 신호도 나기 전에 굴렁쇠를 굴리며 제멋대로 건너 가려고 했습니다.

《야! 신호 안났어, 좀 기다리자》

하고 윤식이가 소리쳤습니다.

《일 없어 교통 정리원이 우리 누나야》。

《그렇다구 마구 건너 가면 되니?》。

《넌 걱정두 많다》。

하며 광호는 마구 달려 갔습니다.

바로 이때에 벽돌을 실은 자동차 한대가 속력을 내여 달려 오다가 광호가 불쑥 나타나는 바람에 〈삐걱—〉하며 멎었습니다. 운전사는 어느 새에 뛰여 내렸습니다.

《너 어쩌자구 그러니? 가슴이 철렁해지누나》

하며 운전사 아저씨는 《후—》

하고 숨을 내쉬였습니다.

앞의 차가 멎자 건설장으로 달리던 많은 자동차들이 모두 멎었습니다.

그제야 광호는 잘못을 깨달았는지 굴렁쇠를 들고 길 량편을 홀금홀금 바라보며 꽁무니를 빼려 했습니다.

이때에 광호의 누나는 연겊어 호각을 불었습니다. 광호는 누나를 흘깃 바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누나는 바로 자기를 부르는 것이였습니다.

《누나는 난 줄 모르는 모양이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자기를 알아보라는 듯이 얼굴만 누나 편으로 돌리고 가던 길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연성 호각을 불며 손짓을 했습니다.

《누나 뭘그래 나야, 나》

하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빨리 와, 빨리》

하고 누나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광호는 어슬렁 어슬렁 누나 앞으로 갔습니다.

《난데 뭘 그래》。

광호는 눈섭이 꺼칠해서 누나를 바라 보았습니다.

《누가 넌 줄 모르고 찾는 줄 아니?》。

누나는 아주 쌀쌀하게 대답하며 옆에 서고 있으라는 시늉을 했습니다. 광호는 이렇게 쌀쌀한 누나의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자동차들은 모래와 벽돌 그리고 재목을 싣고 쉴 사이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누나는 분주히 호각을 불며 오고 가는 자동차에게 신호를 줍니다.

《난 갈테야》。

광호는 서고 있기가 싱겁다는 듯이 누나를 흘깃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규칙을 어겼으니까 내가 가랄 때 가야돼, 너 한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일에 지장을 주었어, 모두가 너처럼 네거리로 마구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봐》

하며 수첩에다 무엇을 적는 것이였습니다. 광호는 깜

짝 놀랐습니다.

《누나 뭘 적나》

하며 누나 앞으로 후닥닥 닥아 섰습니다.

《너의 학교 이름과 네 이름을 적었다》.

《응? 그건 왜》.

《너의 학교에 알리여야지, 광호는 네거리 한 복판에서 굴렁쇠를 굴린다고》.

이 말을 들은 광호는 성이 버럭 났습니다.

남이라면 모르지만 집안 사람인데 그만한 것은 눈감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광호는 누나로부터 몇마디의 주의를 받은 후에 뿌르퉁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야! 너의 누나는 아주 똑바르게 일하는 분이구나》.

옆에 쫓아오며 윤식이가 하는 말을 광호는 들은척도 안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에게 아주 성난 목소리로 네거리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늘어 놓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주 간단히 말하고 누나의 이야기는 길다랗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나가 오면 욕해 주라요》

하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자기 맡은 일을 똑똑히 하는 누나를 욕하란 말이냐?》.

어머니는 꼭 자기 편을 들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누나편을 드는것이였습니다.

다음날 저녁이였습니다. 광호는 누나가 집에 들리려 오는 것을 보고도 입술을 비죽하게 내밀고 본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부르터 있냐》.

누나는 코를 찡긋하며 물었습니다.

《누나는 집안 사람도 몰라보니까 아주 나빠요》.

《내가 뭐 집안 사람을 몰라보던?》.

《그럼 왜 수첩에다 내 이름까지 적었나》.

《응 그래서 얼굴이 아직 부어있구나》.

누나는 상긋 웃으며 광호 앞으로 다구어 앉았습니다.

《윤식이 누나가 너이 선생이지?》.

《그건 또 왜 갑자기 물어요》.

《윤식이가 결석했는데 윤석이 누나는 윤식이를 출석했다고 적을 수 있을가》.

《………》

《그리고 윤식이가 시험에 락제했는데 통지부를 최우등으로 만들 수 있을가》.

누나가 묻는 말에 광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야 안되지 뭐》.

《그럼 교통 정리원이 제 동생이라고 네거리에서 굴렁쇠를 제멋대로 굴리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있을가 생각해봐.

네 한사람 때문에 건설장으로 달려가는 자동차들이 얼마나 많이 멎었어》.

광호는 머리를 벅적 벅적 긁을 뿐이였습니다.

《내가 정리원이였다면 종일 벌을 세워 뒀겠다》.

어머니는 눈을 심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광호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누나를 바라보며

《그럼 학교에 알리웠나?》

하고 묻는 것이였습니다.

《그야 모르지 나는 상부에 보고했을 뿐이니까》.

누나는 시침을 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누나도 선생님처럼 무슨 일이나 똑 바로만 한는구나. 아마 그래서 이번에도 훈장을 탄 모양이지?》하고 생각했습니다.

《난 래일 일찌기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먼저 이야기할 테야》.

《뭐라구》.

《네거리에서 제멋대로 굴렁쇠를 굴리다가 큰 일낼번 했다구》.

《그리고》.

《이제는 거리에서 굴렁쇠를 안 굴리고 뽈도 안 차겠다구》.

《응! 그래야지 그러기 우리 광호가 제일이라니까》.

누나는 광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상긋 웃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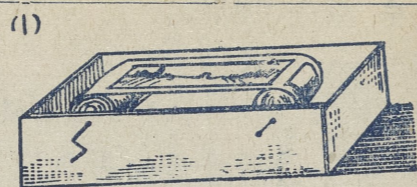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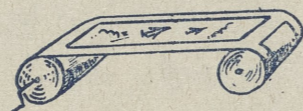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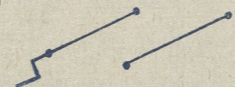
간단한 모형

나는 《소년단》 2호에 실린 간단한 모형 만드는 법을 보고 인민 학교 동생들에게 줄, 재미 있는 모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성냥갑과 종이와 쇠줄만 있으면 됩니다。

한개의 성냥갑에 종이를 바르지 않고 구멍을 네개(두쌍) 뚫습니다。이 구멍은 그림을 말아 감은 쇠줄을 꽂는데 필요 합니다。쇠줄에 감는 그림은 성냥갑보다 5mm쯤 폭이 좁아야 합니다。

그림은 쇠줄을 성냥갑에 끼운 다음 감은 것을 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림 한토막이 성냥갑 폭에 가득 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른 재료를 가지고 좀더크게 만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1) 다 만들어진 것。
(2) 쇠줄에 종이를 감은 것。
(3) 쇠줄 끝은 성냥갑에 넣은 후 끝에 쇠줄을 감아 나오지 않게 한다。한쪽 끝에는 손잡이를 만든다。그림 그린 종이의 량쪽 끝은 쇠줄에 풀로 붙여야 한다。

함북 무산군 제2중학교

원 수 응

《놀음》

고 누 두 기

고누 두기 놀음은 특별히 고누 판과 씨알을 준비하지 않고도 어데서나 간단히 쉽게 누구든지 놀 수 있는 놀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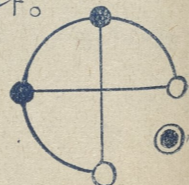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예'날부터 고된 일에 지쳤을 때마다 피로를 풀며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 고누를 즐겨 놀았습니다。

고누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동무들이 놀 수 있는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1) 샘 고누

이것은 어린 1—2학년 동무들이 놀 수 있는 고누 입니다。

처음에 그림과 같이 두 마리씩의 말을 놓고 시작합니다。그런데 그림에 있는 ◉은 강이여서 건늘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한쪽편이 상대편의 말에 막혀 갈 길이 없게 되면 지는 것입니다。

(1) 샘고누

증 기 배

재료—닭알 껍질, 신문지 한장, 솜, 휘발유, (엘콜도 좋다) 쇠줄, 양철 조박。

만드는 법—

(1) 종이를 접어서 배를 만든다。

(2) 생닭알의 앞뒤 뾰족한 부분에 바늘로 구멍을 뚫고 한쪽에 입을 대고 안의 것을 빨아 낸다。

(3) 배 우에 쇠줄로 닭알을 뉘여 고정시켜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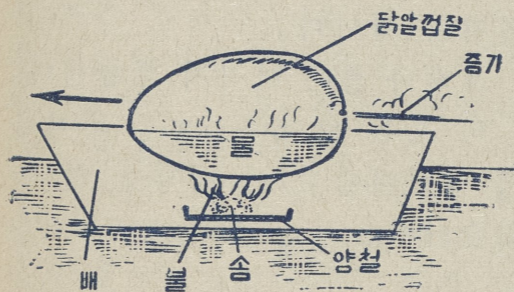
(4) 닭알에 물을 넣고 밑에서 휘발유를 묻힌 솜에 불을 붙인다。솜 밑에는 양철을 놓아 종이가 타지 않도록 한다。

(5) 닭알의 한쪽 구멍은 종이로 막는다。

띄우는 법— 종이배를 고요한 물 우에 띄우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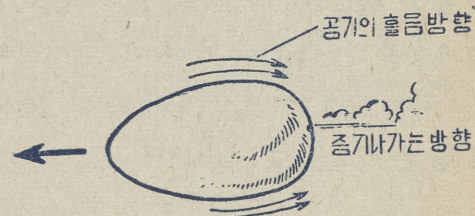
그러면 닭알 안의 물이 열을 받아 증기를 내뿜는 반대쪽으로 움직여 배는 앞으로 나간다。

이것은 제비 비행기가 가스를 뒤로 내뿜으며 날아가는 것과 같은 리유입니다。

(현 상 현)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처음 두는 동무가 첫 수에는 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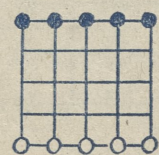
(2) 밭 고누

이것은 세 마리씩의 말을 가지고 두는데 어느 편이든지 더 갈 길이 없이 막히게 되면 지는 것입니다。말은 앞, 뒤, 옆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3) 곤질 고누

이것은 다섯 마리씩의 말을 가지고 두는데 말은 한 눈씩 가면서 적의 말이 나의 두마리의 말 가운데 가칠 때에 내가 먹습니다。이리하여 많이 먹는 편이 이깁니다。

(2) 밭고누

(4) 네바퀴 고누

이것은 네마리씩의 말을 가지고 두는데 반드시 밖의 동그라미 길을 돌아서 첫번 만나는 말을 먹습니다。례를 들면 그림 1은 ㄴ을 먹을 수 있고 ㄷ은 4를 먹을 수 있습니다。이리하여 상대편 말을 다 먹는

(3) 곤질고누

과학소식

새로운 성냥

쏘련에서는 새로운 성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성냥》입니다。

겉을 초종이로 감은 이 성냥은 끄치가 퍽 깁니다。 이 성냥은 단꺼번에 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타며 아무리 모진 바람에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바다에서나 높은 산 또는 야외에서 이 성냥을 켜도 성냥 불이 바람에 꺼질 근심은 조금도 없습니다。

또 한가지 새로 발명한 것은 《불'광이 보이지 않는 성냥》인데 걸 모양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성냥》과 같습니다。

그러나 불이 붙기 시작하면 불'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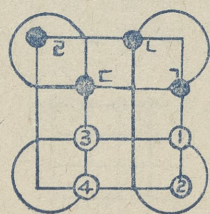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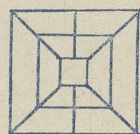
만약 이 성냥을 물 그릇에다 담그면 성냥 주위의 물은 끓어번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또는 바다에서 일할때에도 이 성냥을 쓸 수 있습니다。

편이 이깁니다。

(5) 참 고누

이것은 처음에 고누 줄이 서로 맞닿은 곳마다에 말을 한마리씩 놓기 시작하여 (두 사람이 교대로) 일직선으로 나란히 말 세마리를 놓게 되면 (이것을 꼰이라한다) 적의 말 한마리를 떼여 치우고 뗀 자리에 표를하여 두번 놓지 못하도록 합니다。이리하여 고누 줄이 맞닿은 곳마다에 말을 다 놓은 다음에는 교대로 자기 말을 한 발씩 옮기는데 될수 있는대로 자기는 꼰을 만들고 적에게는 꼰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여 적의 말을 전부 떼여 치운 편이 이깁니다。

(4) 네바퀴고누

(5) 참고누
(찜고누 곤떡고누)

(6) 아홉줄 고누

이것은 아홉 마리씩의 말을 가지고 두는데 적의 말을 먹는 법은 곤질 고누와 같지만 한번에 한 눈씩 가지 않고 일직선으로 몇 눈이든지 갈 수 있습니다。

(7) 장수 고누

이것은 량편에 각각 한마리의 장수말과 열네마리의 병사 말을 가지고 두는데 장수말들은 서로 단번에 몇 눈이든지 가면서 일직선 우에 놓인 두마리의 적 병사말 가운데 들어가면 두마리를 다 먹게 됩니다 한편 량쪽 병사 말들은 적의 장수말을 가두면 이깁니다。

(6)아홉줄고누

(7) 장수고누

주장에게 뽈던져주기

이 놀음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개 팀으로 나누어야 합니다。(한 팀은 10명 이내로)

각팀은 뽈을 잘 던지며 잘 받는 동무를 자기들의 주장으로 내세웁니다。주장은 6—7 보 앞에 나서고 나머지 동무들은 2보의 간격을 두고 횡대로 섭니다。그리고 그자리에 원을 그립니다。

각 팀의 주장들은 배구뽈을 가집니다。

지도원의 신호에 의하여 놀음은 시작 됩니다。 각 팀 주장들은 자기팀 1번에게 뽈을 던집니다 그러면 1번은 뽈을 받아서 도로 주장에게 던져줍니다。 주장은 다시 2번에게 던지며 2번에게서 받은 뽈을 다시 3번…4번 …에게 던집니다。 이때 뽈을 떨어뜨린 동무는 반드시 그 뽈을 잡고 자기 자리에 돌아간 다음에야 뽈을 주장에게 던져 줄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마지막 번은 주장에게서 뽈을받자 마자 곧 뽈을 그냥 가지고 대렬 앞으로 달려가 (이때 다른 동무들은 각각 한자리식 옮긴다) 1번이 섰던 자리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뽈은 주장에게 던집니다。이리하여 놀음은 처음과 같이 다시 계속됩니다。이러한 순서로 전체 동무들이 처음에 섰던 자리로 다시 돌아 오게 될 때면 놀음은 끝나게 됩니다。이때 주장은 마지막 동무로부터 받은 뽈을 놀음이 끝났다는 신호와 함께 자기 앞에 놓습니다。이것이 제일 먼저 끝난 팀이 이 놀음의 승리자로 됩니다。이 놀음은 다시 주장을 바꾸면서 여러번 하여 제일 많이 이긴 팀을 마지막 승리자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나무와 남이

남이네 집 앞 길'가에는 올봄에 심은 어린 나무가 싱싱 자라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다니는 누나는 아침마다 이어린 나무에 물을 주며 잘 가꾸어 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날이였지요.

남이는 팽이를 치다가 팽이채를 부러 뜨렸습니다.

—옳아 가로수 한가지 꺾으면 돼, 한가지 꺾는거야 뭘

이렇게 생각한 남이는 닁큼 길'가로 달려나가 어린 나무 한가지 꺾었지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누나가 나왔습니다.

—얘야, 너 여기서 뭘 하니?

—아무것도 안해요.

남이는 꺾은 나무를 감추며 실죽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나무를 쳐다보며

—아이, 나무가 상했구나 누가 꺾었을가? 하고 말했습니다.

—누나 뭘 그래, 나무 한가지 꺾어진걸.

—넌 정말 모르는구나. 어린 나무들이 어서 크게 자라면 거리가 얼마나 아름다워 지겠니, 이걸 심은 아저씨들이 봤으면 퍽 걱정하겠지.

누나는 근심스러운 얼굴을 지으며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남이의 머리는 차츰

수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가믄 좋아, 난 누나를 속였어—. 남이는 이렇게 속사기며 나무가지를 도루 부치고 새끼오라기로 쳐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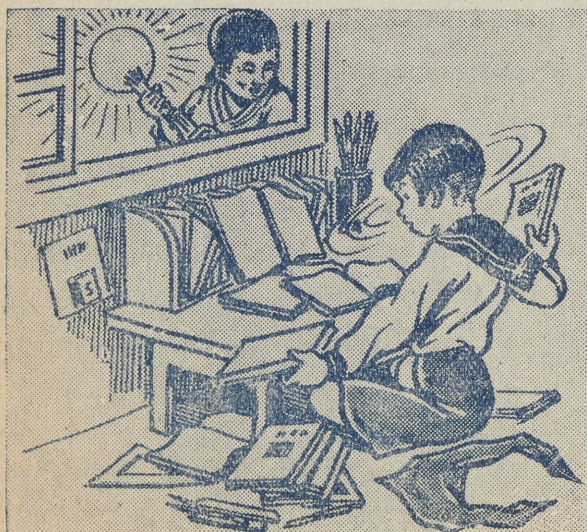
그리고 곧 누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누나 내가 꺾었어요. 난 누나 말 듣고 도로 붙였어요. 누나 그럼 됐지?

—응?

누나는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그림 림 홍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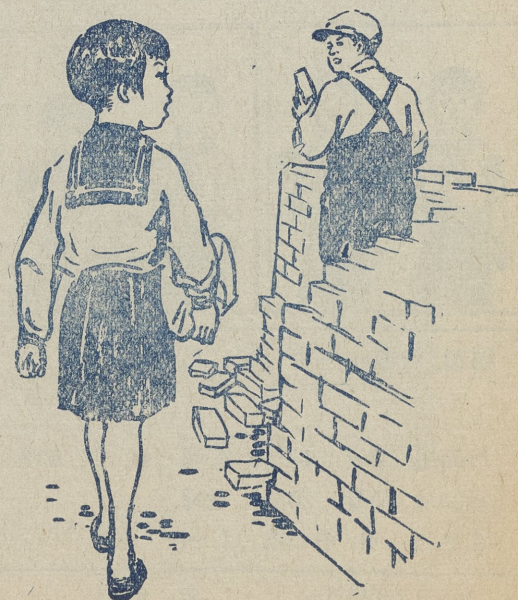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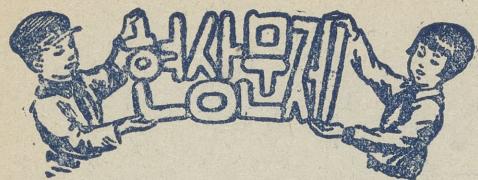
몇 가지 잘못이 있나?

아침해는 창문에 활짝 비치고
아버지는 공장으로 일하시려
갔지요.
그러나 순옥이는 숙제문제 푸노라
이책저책 뒤지며 서둘고 있어요.

어머니는 뜨락까지 말끔히 쓸고
방안의 순옥에게 말하였지.
—얘야 넌 학교로 가지 않니
해가 퍽 높이 떳구나.

순옥이는 바쁜걸음 학교로 가며
《아저씨 아저씨》.
길'가에서 일하시는 건설자 아저씨를 부르고
—지금 몇시야요? 소리 쳤지요.

친절한 아저씨 일손 멈추고
—아직 학교엔 늦지 않았구나.
웃으며 대답을 하자
순옥이는 활개치며 걸어 가지요.

× × ×

소년단원 동무들 생각해 보세요
순옥이가 몇가지 일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봉숙 동무네 반 동무들은 반 모임이 끝났을 때 그림을 그리며 놀았습니다。

영숙 동무가 지은 작문을 읽고 제가끔 그림을 그렸는데 두가지 그림을 볼수 있었습니다。

× ×

……봉선이와 일홍이는 소꿉놀이에 신이 났다。

둘이서 재미 있게 놀다가 말다툼이 벌어졌다。

봉선이—얘! 내 인형은 네것보다 크지!

일홍이—얘! 똑똑히 봐! 적지 않다 얘!

이렇게 자기들의 인형이 크다거니 적지 않다거니 하고 서로 말 소리를 높이였다。………

× ×

이것은 영숙 동무가 지은 작문의 일부입니다。 무엇을 잘못 말했기때문에 두가지 그림이 나왔습니까?

3호 현상문제 해답 및 당선자 발표

답 버들꽃

당선자

강원도 고산군 연호인민학교 배기영
량강도 운흥군 제2중학교(인민반) 강영란
량강도 갑산군 제3중학교(인민반) 조경일
함북 연사군 제5중학교(인민반) 김정호
함북 명천군 제1중학교(인민반) 최봉철
함남 덕성군 양승 제1인민학교 김상길
함남 함 흥 제1중학교(인민반) 리경자
자강도 중간군 원동 인민 학교 렴수용
자강도 위원군 대야 인민 학교 한선옥
평북 동림군 인풍 인민 학교 김영란
평북 운산군 북진 인민 학교 리운공
평남 양덕군 봉계 인민 학교 박영찬
황북 평산군 평화 인민 학교 유재성
황남 신천군 청산 인민 학교 백광호
황남 신천군 명석 인민 학교 문충언
평양 제7인민 학교 김명숙

편집 위원——김 주 현(주필) 김 창 호 원 홍 구 리 순 길
강 효 순 리 배 형 림 홍 은

1955년 5월 15일 인쇄
1955년 5월 20일 발행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55년 제 5 호 (총68호)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0069 값 40원 총배포처——체신성 출판물 관리국

즐거운 봄날의 체육